"복귀 절대 없어…나의 사퇴가 친노패권 청산 촉매제 되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비난 발언에 최고위원직 사퇴를 밝힌 주승용 최고위원(왼쪽)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의 만류를 뿌리치고 퇴장하고 있다.

새정치 고비마다 막말로 '제 발등'

정청래 이번엔 박주선의원 공격 설 훈 '대통령 연애' 언급 파문 홍익표 귀태 발언 등 정치적 치명타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막말'이 정치적 고비마 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주고

이번에도 정청래 최고위원이 '말썽'이 됐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 용 최고위원에게 독설을 퍼부어 누그러지는 듯했던 당내 갈등은 불난 데 기름을 끼얹은듯 걷잡을 수 없

이처럼 야권에서는 위기나 고비 때마다 일부 강 경파 의원들이 막말을 해 어렵게 잡은 기회를 걷어 차거나 위기를 더욱 키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문 재인 대표는 지난 2013년말 펴낸 대선 회고록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야권 진영의 '근본주의'를 언급 하며 "이른바 '싸가지 없는 진보'를 자초한 게 아닌 지 겸허한 반성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지만 허사 가 돼버린 셈이다.

문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과 등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정 최고위원은 10일 현재까지 사과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또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정 최고위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갓 취임한 문 대표가 국민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을 '유대인의 히틀러 묘 소 참배'에 빗대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지난해 9월 세월호법 재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 을 때에는 설훈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 통령의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 은 거짓말"이라며 '싱글'인 대통령의 '연애'를 언급 해 파문을 일으켰다.

2013년말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 해 장하나 의원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데 이어 양승조 의원이 박 대통령에 대해 "선친의 전철을 밟 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불행을 저주하는 듯한 발 언을 해 정국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앞서는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으로 여당의 반 발을 사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를 제 대로 이끌지 못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김용 민 후보의 잇따른 '막말'이 치명타가 돼 당시 민주 통합당은 다 잡았던 총선 승리를 놓쳤다는 지적을

새정치 관계자는 "중요한 시기일수록 언행에 더 욱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수습 하지도 못할 말을 뱉어 당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 해를 입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어 "원색적인 비난이나 자극적인 언사로 지지자들 의 관심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다수 국민과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있는 같은 당 박주선(광주 동)의원에게도 10일 자신 유권자가 등을 돌리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의 트위터를 통해 막말 공격을 벌였다.

막말·퇴장에 트로트까지…

'블랙 코미디' 새정치 최고위

새정치민주연합의 심각한 내홍을 몰고온 지난 8 일 최고위 회의는 '블랙 코미디'를 방불케 했다.

이날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선된 뒤 처음 열린 회의로 단합과 함께 '심기일전'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 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앞서 사퇴의사를 밝힌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해 "공갈을 친다"고 독설을 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를 들은 최고위원은 "치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가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해 도 공갈치지 않았다"며 격분, 문 대표 등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이 와중에 마이크를 잡은 유승희 최고위원은 "오늘 어버이날이라 어제 경로당에서 노래 한 소 절 불러드리고 왔다"며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로 시작되는 원로가수 고 백설희씨의

'봄날은 간다'의 일부를 즉석에서 불러 주변을 당 황케 했다. 미리 준비한 듯 분홍색 정장상의 차림

유 최고위원은 이후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페이 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합이며,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래를 한 것"이라며 "의도와 달리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 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표는 퇴장하려는 주 최고위원의 손을 맞잡고 상황을 수습하려했으나 주 최고위원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주 최고위원이 의원회관으로 이동하자 동료 의원 들이 사퇴를 말리러 쫓아가고, 오후에는 문 대표가 직접 주 최고위원을 만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 아 발을 동동 구르는 등 '숨바꼭질' 모습까지 연출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 칩거 주승용 의원 인터뷰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에 격분,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격 화되고 있다.

4월 재보선 패배 이후, 별다른 쇄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로 인한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는 문재인 대표의 리 더십은 물론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흔 들리게 만들고 있다.

주 최고위원은 지난 2·8 전대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광주일보는 10일 오전 지역 구인 여수에 머물고 있는 주승용 의원과 전화 인터 뷰를 통해 심경을 들어봤다.

-최고위원직 사퇴를 했는데 복귀 가능성은 없나.

▲전혀 없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은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의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호 남 민심과 당원들에 대한 '폭언'이기 때문이다. 호남 민심을 빌미삼아 공갈치지 말라는 것 아닌가. 내가 최고위원에 복귀한다면 이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 정 최고위원이 왜 막말을 했다고 생각하나.

▲친노 패권주의가 배경에 있다고 생각한다. 비 노 최고위원을 비난, 비하하고 '사퇴하려면 하라'는 것 아니냐. 정 최고위원 단독으로 이런 발언을 했겠 느냐. 일부 과격한 당내 친노 인사들과의 공감이 이 뤄지지 않았느냐는 추측을 해본다. '사퇴할 사람은 가고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번 사태 이전에 사퇴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 ▲ 지도부 인사로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한 정청래 막말 당 입지 흔들어

선거 참패 어물쩍 넘어갈 수 없어 신당 반대…당 깨지면 절대 안돼

다고 생각해 사퇴 의사(광주일보 1일자 3면)를 밝 혔으나 의원총회에서 반려됐다. 이후 문 대표가 당 내 인사들과 소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함께 길을 찾아보려 했으나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재보궐 선거 직후, 지도부 사퇴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나.

▲그냥 참패가 아니다. 광주(서을)와 서울의 호남 이라는 관악 을이 포함된 참패다. 과거 같으면 친노 강경파를 중심으로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번에는 '단합에서 그냥 가자'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다. 선거 패배는 어물쩍 넘어가면서 책임을 지자는 사람은 분열주의자로 몰아갔다. 선거 패배 직후, 문 재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정했다면 분명히 재신임 받고 그를 동력으로 당도 다시 태어 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표의 사퇴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이번 사태로 문 대표가 무척 곤혹스러울 것이 다.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사퇴를 바라지는 않는다. 또 다시 지도부를 선출하거나,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거의 좋지 않은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문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 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나의 사퇴가 친노 패권주의 청산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문 대표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친노 패권주의의 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 이는 친노의 수장이라는 평가 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 하다. 이를 통해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야 한다.

-친노 패권주의가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친노들만이 친노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당은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강력 한 세력화를 통해 비노와 중도 세력을 들러리 세우 고, 세우려하고 있다. 이는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아는 것이며 당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의 방법은 있는가.

▲ 아주 쉽고 단순하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의 운영과 현안에 대한 결정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공 개적으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밝혀 야 한다. 문 대표가 계파의 'ㄱ'자도 안 나오게 만들 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그동안의 인 사가 좋은 예다. 탕평 인사를 한다고 했으나 무늬만 탕평이었다. 당내 실무진 인사까지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 문 대표의 뜻은 아니겠지만 분명하게 뒤 에서 작용하는 세력이 있다고 본다. 또 문 대표가 자신의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당을 운영한다는 의구심이 있다. 공정하게 대선 후보를 육성해야 한 다. 원탁회의가 방법이 될 수 있다.

-당 내홍으로 신당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당이 깨지는 것은 절대 바라지 않는다. 신당에 반대한다. 일각에서는 내가 김한길 전 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당내 비주류 진영의 사주를 받는 것 처럼 호도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